

영재와 학력우수 아동의 행동특성에 대한 교사의 지각

Teachers' Perception of Behavior Characteristics Between Gifted and High Achievers

이영주(Young Ju Lee)¹⁾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behavior characteristics for the gifted(N=210) and the high achievers(N=115). The participations in this study were 200 teachers who rated their 325 students' behavior characteristics in 25 public elementary schools in U.S.A rating of behavior characteristics in learning style, motivation, creativity, and leaderships by teachers indicated differences in keen observation, rapid insight into cause-effect relationship, a large storehouse of information, language fluency, absorption/task persistent, preference for own learning activities, concerns for moral/ethical issues, and a diversity of interests between groups. No differences in understanding of underlying principles, organization, curiosity, creativeness, motivation, initiating activities in areas of personal interest, directing group activities, and intellectual playfulness/imagination were found in addition to some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Key Words : 영재(gifted), 학력우수아(high-achiever), 행동특성(behavior characteristics).

I. 서론

이제 세계는 두뇌 전쟁의 시대로 돌입하면서 우수한 인재 한명이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게 되었다. 그만큼 두뇌 경쟁이 치열해지고 고급 두뇌 양성이 중요한 시대가 되어 국가 차원에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학교에서는 이런 우수한 잠재적 능력을 가진 아동을 영재로 진단하고 아동의 학업적, 사회적, 정서적 잠재력을 개발시키려고 한

다. 그러므로 학교 관계자들은 영재 아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들 아동들이 그들의 잠재된 능력을 사회에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이영주·이귀옥, 2004).

영재에 대한 관심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초기에는 영재를 지능이 높은 아동으로 간주하고 지능검사라는 방법을 통해 영재를 선별하는 편협하고 제한된 영재의 의미로 정의·진단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영재에 대한 정의는 지능뿐만 아니라 영재적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 분야를

¹⁾ 경성대학교 생활경영학과 강사

Corresponding Author : Young Ju Lee, Department of Human Ecology, Kyunsung University, 314-79 Daeyeon-dong, Busan 608-746, Korea E-mail : lee_young_ju@yahoo.co.kr

포함하는 보다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학자들마다 다르게 정의를 내리고 진단하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영재 교육 진흥법(2002)에 따르면 영재를 일반 지능, 특수 학문 적성, 창의적 사고 능력, 예술적 재능, 신체적 재능, 기타 특별한 재능에서 타고난 잠재력을 보이며 이를 개발하기 위해 특별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미 교육부(United States of Office of Education)(1993)는 영재를 인지 능력(General Intellectual Ability), 특수학업 영역에서의 적성(Specific Academic Aptitude), 창의적이며 생산적인 능력(Creative or Productive Thinking), 지도자적인 능력(Leadership Ability), 예술 능력(Visual and Performing arts)에서 뛰어난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다(Sattler, 2002). Renzulli(1978)에 따르면 영재는 평균 이상의 지능, 과제 집착력 및 동기욕구, 창의성을 가진 자로 이 세 가지 요인이 서로 상호 작용하여 영재적 특성이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이 세 가지 요인에서 모두 85% 이상의 높은 능력을 가지며, 그 중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특성에서 98% 이상의 우수한 능력을 보인다면 뛰어난 성취를 이룰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Lamkins(1977)에 의하면 영재란 특정 분야에 소질과 창의성을 가지고 영재 교육 프로그램에 맞는 동기와 성격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영재로 판별되기 위해서는 소질, 창의성, 성격 및 동기라는 세 가지 영역 중 두 가지 이상의 영역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여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1920년대에는 영재아동과 같이 우수한 사람은 신체적으로 약하고 사회생활 및 정서적인 면에서 불안한 경향이 있다고 믿어졌다(김종현 · 윤치연 · 이근매 · 이성현 · 이은림, 2003). 그러나 이러한 고정관념이 Terman과 Oden(1947)의 연구를 시작으로 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 연구

에 따르면 영재 아동은 학력 성취도가 아주 높으며 고대 역사 및 토론과 같은 추상적인 과목을 선호하며 책을 많이 읽고 다양한 취미를 가지고 있으며 신체적 · 정신적으로도 일반 아동들에 비해 훨씬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학습, 동기, 창의력, 지도적 측면에서의 영재 아동들의 행동 특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 졌다. 학습적인 측면에서 영재 아동들은 사용 어휘수가 다양하고 많으며 풍부한 표현력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의견을 유창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리고 예리한 관찰력을 가지고 있어 이야기나 영화 등에서 보다 많은 정보를 얻으며 또래 집단의 일반적인 관심 수준을 넘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며 학습 및 습득 태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과관계를 잘 파악하며 사물의 배후에 숨어 있는 법칙과 원인을 쉽게 발견하고 타당한 일반화를 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종현 · 윤치연 · 이근매 · 이성현 · 이은림, 2003; Clark, 1997; Gallaher & Gallaher, 1994; Maker, 1996; Piirto, 1999). 뿐만 아니라, 영재아동은 그들의 높은 지적 능력을 이용하여 자신들이 직면하는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ilgram & Milgram, 1976). 동기적인 측면에서, 영재아동은 정신적 자극에 대한 강렬한 요구와 호기심이 많아 질문을 자주하며 자신은 물론 타인에 대해 비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적 나아가 세계적 수준에서의 도덕 및 정의감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만약 자신이 관심이 있어 하는 일이 있으며 거기에 완전히 매료되어 그 일을 끝까지 하려고 하는 완벽 주의적 성향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보고되었다(Coleman & Cross, 2001). 창의적 측면에서, 영재아동은 또래 보다 상상력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언어적 유머 감각을 보이며 독특하거나 비상한 해결방안을 제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조작하고 개선 수정하는 것을 좋아하며 자신의 결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며 다른 사람에게 쉽게 동화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종현 · 윤치연 · 이근매 · 이성현 · 이은림, 2003; Coleman & Cross, 2001). 지도적 측면에서, 영재아동은 주도성이 풍부하며 타인과 잘 교제하나 집단의 행동양식을 쉽게 추종하지 않고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려는 경향이 많다고 보고되었다(Clark, 1997; Gallaher & Gallaher, 1994; Maker, 1996; Piirto, 1999; Silverman, 1995; Terman & Oden, 1947). 그 외에 신체적으로 아주 건강하며 심리·정서적인 면에서도 일반 아동과 비교해서 신경학적 문제가 훨씬 적고 안정되어 있으며 자아 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Terman, 1925; Terman & Oden, 1947; Davis & Rimm, 1989).

영재 아동들에 관한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이들은 표준화된 지능 검사에서 130(표준편차 15인 경우) 이상의 높은 지적 능력을 가지며, 대부분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하며 우수한 성적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Terman, 1925; Terman & Oden, 1947; Davis & Rimm, 1989). 그러나 Terman & Oden(1947)의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영재 아동의 약 20%는 학교생활에 심한 부적응을 보이며 비행률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Hollingworth(1942)에 따르면 영재 아동이 일반적으로 사회적 적응력이 좋지만, 지적 능력이 145 이상인 아주 우수한 영재일 경우는 학업 능력이 저조한 하급 성취(under-achievement)나 외로움, 완벽 주의적 성향들로 인해 사회적·정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즉 지적으로 약간 우수한 영재 아동의 경우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나며 공부를 잘하는 착한 아동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높은 반면 지나치게

뛰어난 영재아동의 경우 높은 지적 욕구와 심리 정서적 특성으로 인해 일반학급에서의 적응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영재아동 중 우수한 지적 능력과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력을 보이며, 심리·정서적으로 문제가 없는 아동의 경우 교사에 의해 쉽게 영재로 지각되어져 영재 판별에 의뢰되는 경향이 높은 반면 학업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 정서적 불안 및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동, 장애를 가진 아동, 혹은 교사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고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동들의 경우 교사는 영재로 지각하는 경향이 낮아 이들 아동이 영재 판별에 의뢰되는 경우가 드물다고 보고되었다(이영주 · 이귀옥, 2004; 재인용; Whitmore, 1981; Ford, 1998; Kolb & Jussim 1994).

영재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 분야 중 하나는 판별과 진단이다. 왜냐하면 영재에 대한 정확한 판별 절차가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위한 절대적 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영재아의 진단과 판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는 학자들마다 영재에 대한 정의가 다를 뿐만 아니라 영재의 진단과 판별 과정에서 나타나는 행정 절차와 평가 도구 사용 등에 관한 문제로 단 하나의 적절한 진단기준이나 판별 절차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 비록 현재에는 인지 능력 이외에 창의력, 과제집착력 등 영재성의 다른 면에 대해서 예민하게 인식되어지고 있지만 영재 판별은 일반적으로 교사 및 학부모에 의한 추천을 통해 선별되어진 아동의 지적 능력 및 학업 성취도 결과를 바탕으로 판별되어 지고 있다 (김종현 외, 2003). 우리나라에서 영재 학교로 지정된 과학 고등학교나 외국 고등학교와 같은 특수학교와 대학 혹은 교육청에서 선발하는 영재 판별 기준을 살펴보면 수능 또는 내신 성적의 상위 2~5%와 함께 교사의 추천을 요구하고 있다. 즉, 대부분의

영재 판별은 지능 및 학력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판별되어지고 있으며 전체 영재 아동의 약 95%가 지적 능력이 뛰어난 영재 또는 학업 능력이 우수한 아동을 위주로 영재 판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고되었다(김종현 외, 2003).

영재 판별은 일차적으로 교사 및 부모의 추천에 의해 이루어진다. Rodell, Jackson와 Robinson (1980)은 영재 판별에 있어 교사에 의한 추천의 정확도를 살펴보기 위해, 교사들에게 영재 아동으로 지각되어 지는 아동을 선별하도록 요청했다. 이때, 교사가 선별한 아동의 약 50% 정도만 정확하게 영재로 판별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낮은 정확도는 교사들이 영재 아동의 특성을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며 특히 교사들은 높은 성취자와 학교 및 교사의 규칙에 잘 순응하는 아동을 위주로 영재를 선별하거나 뛰어난 창의적인 특성을 가진 아동이나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동들은 영재 선별 과정에서 무시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런 낮은 판별의 정확도에도 불구하고 교사에 의한 영재 판별은 판별 과정의 효율성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표준화된 검사가 제공해 주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영재 판별에서 중요하다(Chamber, Barren, & Sprecher, 1980; Renzulli & Smith, 1977). Gear(1978)의 연구에 의하면 교사에 의한 영재 판별의 정확도를 살펴 보기 위해 영재 특성 및 판별에 대해 훈련을 받은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간의 판별의 정확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영재 특성 및 판별에 대한 훈련을 받은 교사는 85.5% 정도로 정확하게 영재를 판별했으며 훈련을 받지 않은 교사 집단은 약 40.3%만 영재를 판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가 영재 아동에 대한 행동 특성을 바르게 이해하고 추천한다면 판별의 정확도가 40% 이상 더 향상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Renzulli,

Hartman, & Callahan, 1971). 이러한 결과는 교사에 의한 추천 및 판별이 널리 사용되는 현 시점에서 보다 정확한 영재 판별을 위해 교사는 영재의 행동 특성에 대해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영재 판별은 주로 지능 및 학력 검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력 우수 아동이 쉽게 영재로 간주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학력우수 아동으로부터 영재를 선별하는 것은 어렵다. 또한 영재 아동의 행동 특성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영재와 일반 아동간의 행동 특성을 비교하였으며 영재와 학력우수 아동간의 행동 특성을 비교한 연구는 지금까지 전무하였다. 따라서 영재와 학력우수 아동간의 판별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특히 교사는 아동의 능력, 흥미에 맞는 교육적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다 정확하게 영재를 학력우수 아동과 선별할 수 있어야 하므로 본 연구는 교사가 지각하는 영재와 학력우수 아동간의 행동 특성을 비교해 보고자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플로리다 주에서의 영재는 교사 및 부모의 추천에 의해 의뢰된 후 학교 심리학자에 의해 평가된 지능, 교사에 의한 평가된 영재특성 체크리스트 점수, 학업 능력 등 세 가지 항목을 바탕으로 판별된다. 본 연구는 미국 플로리다 주에 위치한 25개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동 중 영재 판별을 위해 심리 평가에 의뢰된 325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이 아동들을 담당하고 있는 200명의 교사가 이들의 학습태도, 창의력, 동기, 리더쉽과 관련된 17개 문항의 행동 특성 설문지를 작

성하였다. 325명의 학생 중 210명은 지적 능력이 130 이상으로 플로리다 주에서 영재아동으로 판별된 아동이며, 115명은 학력우수 아동으로 판별된 자료, 지적 능력은 평균 혹은 평균 이상이며, 읽기나 수학의 특정 학업 능력이 상위 3~5%(수학 혹은 읽기 영역에서 130 이상)내에 해당하며 영재로 판별되지 않은 아동이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영재와 학력우수 아동의 행동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Renzulli, Hartman, Callahan(1971)에 의해 제작된 “A Scale for Rating Behavior Characteristics of Superior Students”를 참고로 본 연구에 적합하게 17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검사 도구는 영재적 특성에 관한 체크리스

트로 학습특성, 동기 능력, 창의력과 리더쉽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재 아동 선별 과정에서 널리 사용되는 검사 도구 중 하나이다(Coleman & Cross, 2001). 본 연구의 검사 도구는 교사가 아동을 평가하는 것으로, 제시된 문항과 같은 행동 특성이 대상 아동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No(0점), 나타나면 Yes(1점) 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영재와 학력우수 아동 사이에 교사가 지각하는 행동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17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설문지의 각 문항은 두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통계방법으로는 *t-test*를 사용하였다.

〈표 1〉 교사가 지각한 영재와 학력우수 아동의 행동특성

	영 재		학력우수		F	t
	M	SD	M	SD		
2. 사건, 사람, 사물의 배후에 숨어있는 원리를 빨리 파악하고 타당한 일반화를 잘함	.834	.369	.809	.395	1.752	.669
4. 사람, 사물,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조직적으로 체계화 시키기를 좋아함	.776	.418	.791	.408	.402	-.314
7. 사물에 대한 호기심이 풍부하고 질문을 많이 하며 새로운 것을 알려고 함	.886	.319	.870	.338	.722	.427
8. 비판적이며 비판을 하지 않고는 권위적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음	.719	.451	.687	.466	1.405	.607
9. 문제나 질문에 대해 독특하거나 비상한 해결방안을 많이 제시함	.810	.394	.835	.373	1.303	-.563
11. 자신이 흥미있어 하는 일을 할 때 외부적 동기유발이 거의 필요 없음	.924	.266	.930	.256	.191	-.218
13. 자신이 흥미 있는 일에 독서나 관찰 등 스스로 찾아서 함	.886	.319	.852	.356	2.964	.869
14. 자신이 속한 그룹의 활동을 리더함	.624	.486	.617	.488	.051	.114
16. 공상, 상상 등을 포함한 지적 활동을 보이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조작하고 제도나 체계 등을 수용, 개선, 수정 하는데 관심을 보임	.781	.415	.774	.420	.084	.146

p*<.05 *p*<.01

Ⅲ. 결과 및 해석

1. 교사가 지각한 영재와 학력우수 아동의 행동 특성

교사가 지각한 영재와 학력우수 아동들의 행동 특성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문항에 대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보듯이 영재와 학력우수 아동들은 사건, 사람, 사물의 배후에 숨어 있는 원리를 빨리 이해하고 타당한 일반화를 잘하며($t=.669, p>.01$),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며($t=-.314, p>.01$), 호기심이 많아 새로운 어떤 것을 알아가려고 하거나 질문을 하는 태도를 가지며($t=.427, p>.01$),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비판을 하며 비판 없이 권위적인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607, p>.01$). 또한, 창의성과 새롭고 독창적인 문제 해결력을 나타내며($t=-.563, p>.01$), 자신이 흥미 있어 하는 일을 할 때는 외부의 동기유발이 거의 필요 없다($t=-.218, p>.01$). 그리고 자신이 흥미 있어 하는 영역에 대해 책을 읽거나 연구하기를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869, p>.01$). 또한, 자신이 속해 있는 그룹 활동에서 지도성을 보이며($t=.114,$

$p>.01$) 공상, 상상 등을 포함한 지적 활동을 통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조작하고 사물, 제도, 체제 등을 수용·개선·수정 하는데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t=.146, p>.01$). 즉 교사들은 영재 아동이 학력우수 아동들과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한 행동 특성을 보인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2. 교사가 지각한 영재아동의 행동 특성

교사가 지각하는 영재아동의 행동 특성에 대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 제시된 것처럼 교사들은 영재 아동이 학력우수 아동들에 비해 다양한 주제에 대해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정보를 빨리 배우며($t=1.432, p<.01$) 높은 수준의 어휘력을 보유하고 용어를 의미 있게 사용하며 언어 표현이 유창하고, 풍부한 행동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t=1.018, p<.05$). 또한, 자신이 흥미 있어 하는 문제나 주제에 완전히 몰입하여 끝까지 풀거나 알아내려고 하는 성취경향을 보이며($t=1.627, p<.01$) 스스로 독립적으로 학습하는 경향($t=2.124, p<.01$)이 있다고 지각하였다.

<표 2> 영재와 학력우수 아동 비교에서 교사가 지각한 영재 아동의 행동특성

	영재아동		학력우수		F	t
	M	SD	M	SD		
5. 다양한 주제에 대한 방대한 지식 및 정보를 소유하고 있음	.919	.273	.869	.338	8.077	1.432**
6. 용어를 의미 있게 사용하고 언어 표현이 풍부하고 유창함	.852	.356	.809	.395	4.022	1.018*
10. 자신이 흥미 있어 하는 일에 대해 완전히 몰두하며 일을 끝까지 하려고 함	.938	.242	.887	.318	10.505	1.627**
12. 스스로 학습하는 것을 좋아함	.800	.401	.686	.462	16.229	2.124**

* $p<.05$ ** $p<.01$

<표 3> 영재와 학력우수 아동 비교에서 교사가 지각한 학력우수 아동의 행동특성

	영 재		학력우수		F	t
	M	SD	M	SD		
1. 관찰력이 날카로우며 이야기 영화등에서 보다 많은 것을 보고 얻음	.943	.233	.983	.131	12.136	-1.690**
3. 인과관계를 쉽게 파악	.895	.307	.930	.256	4.549	-1.047*
15. 옳고 그름 등 도덕적 윤리적 문제에 관심이 많음	.724	.448	.783	.414	5.806	-1.161*
17. 다양한 흥미를 가지며 다양한 영역에서 유창한 표현을 통한 감각이 풍부하다(음악, 미술 등)	.643	.480	.696	.462	4.001	-.960*

* $p < .05$ ** $p < .01$

3. 교사가 지각한 학력우수 아동의 행동특성

교사가 지각한 학력우수 아동의 행동 특성에 대한 결과는 <표 3>와 같다.

<표 3>에서 제시된 것과 같은 학력우수 아동들은 날카로운 관찰력을 가지고 있으며, 영화나 이야기 등에서 보다 많은 것을 보고 얻으며 ($t = -1.690, p < .01$) 인과 관계를 쉽게 파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 = -1.047, p < .05$). 또한, 도덕 혹은 윤리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보이며($t = -1.161, p < .05$) 다양한 영역에 흥미가 있으며 음악, 미술, 무용과 같은 여러 형태의 표현 방식에서 뛰어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t = -.960, p < .05$) 교사에 의해 지각되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교사가 지각하는 영재와 학력우수 아동들의 행동 특성을 살펴봄으로 이들의 행동에 있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재와 학력우수 아동들은 호기심이 많

고, 흥미 있는 일에서는 외부적 동기 유발이 필요 없고 스스로 독서나 연구 활동 즐겨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풍부한 이해력을 바탕으로 인과 관계를 빨리 파악하며,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사고력과 함께 비평적이고 분석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해결능력과 더불어 공상이나 상상과 같은 지적 흥미를 즐기며, 지도성이 풍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아동 중에서 학교 적응력이 뛰어나며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력우수 아동 또한 여러 가지 면에서 영재와 비슷한 외현적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교사들은 지각하고 있었다. 영재적 특성에 관한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영재 아동들은 비영재 아동들에 비해 다양한 영역에 흥미가 있으며 활동적이며 적극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책읽기를 좋아하며 어휘력이 풍부하고 많은 양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기억력 뿐만 아니라 호기심이 풍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U. S. Department of Education, 1993; Torrance, 1965). 본 연구 결과는 영재적 특성에 관한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 하지만 비영재, 즉 학력우수 아동들 또한 영재 아동과 비슷한 행동 특성을 보인다는 면에서는 선행 연구 결과와는 다르다. 즉 비영재인 학력우수 아동 또한 영재와 같이 여러 가지 면에서 영

재적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영재와 학력우수 아동이 보이는 유사한 행동특성으로 인해 교사가 학력우수 아동을 영재로 선별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나아가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것처럼 교사에 의한 판별의 정확도가 낮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영재 판별에 있어 학력우수 아동들 또한 영재적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영재와 학력우수 아동간의 공통적인 행동 특성과 더불어 행동 특성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영재 아동들은 학력우수 아동들에 비해 정보가 풍부하고 새로운 것을 빨리 배우며, 어휘력이나 언어적 표현이 뛰어나고, 자신이 흥미 있는 주제에 대해 몰입하며 성취하려는 성향이 높으며, 스스로 학습하는 것을 좋아하는 특성을 보인다고 교사들은 평가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영재 아동의 경우 높은 수준의 어휘력과 풍부하고 유창한 언어 표현력을 보이며 동년배의 관심 수준 이상으로 여러 문제에 대해 풍부한 정보와 빠른 학습 습득력과 기억력과 함께 뛰어난 관찰력과 논리적이며 명백한 해답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으며 인과관계 및 법칙과 원리를 잘 이해하는 특성이 있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김종현 · 윤치연 · 이근매 · 이성현 · 이은림, 2003; Clark, 1997; Gallaher & Gallaher, 1994; Maker, 1996; Piirto, 1999; Renzulli, Hartman & Callahan, 1971). 그러나 선행 연구는 영재와 일반 아동간의 비교인데 비해 본 연구 결과는 영재와 학력우수 아동간의 비교를 통해 나타난 영재 아동의 특성이므로 본 연구 결과는 영재 판별에 있어 학력우수 아동을 변별하는데 있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영재의 긍정적 특성에 대한 비교를 실시

했으므로 후속연구로는 영재와 학력우수 아동의 특성 비교에 있어 긍정적인 영재적 특성 뿐 만 아니라 영재적 특성 중 부정적 행동 특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학력우수 아동들은 예리한 관찰력과 이론이나 원리를 바탕으로 인과 관계를 이해하고 도덕 혹은 윤리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영역에서 흥미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학력우수 아동의 특성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학력우수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학습에 흥미가 있으며 동기 욕구가 뛰어나며 학업 수행에 대한 특성이나 학습자로서 그들의 유능함에 대한 믿음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보다 더 뛰어난 학업 능력을 나타내는 자로 자신감이 높고 학습 상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을 보이며 학업적, 개인적, 정서적으로 적응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여러 분야에 흥미를 가지고 잘 이해하며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보다 수용적이며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chunk, 1984; Pintrich & DeGroot, 1990). 이는 본 연구 결과에서 학력우수 아동의 경우 영재와 마찬가지로 외부적 동기 없이 스스로 알아서 학습한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본 연구 결과에서 학력우수 아동이 영재보다 다양한 분야에 흥미를 가진다는 결과는 선행 연구와 비슷한 결과지만 학력우수 아동 또한 영재와 마찬가지로 창조적이고 독창적인 문제 해결력을 보이며 그룹 활동에서 리더십을 보인다는 점에서는 이전의 결과와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Schunk, 1984; Pintrich & DeGroot, 1990). 지금까지 학력우수 아동에 대한 선행 연구는 일반 아동과 비교한 학력우수 아동의 특성에 대한 연구 결과이므로 영재 아동과 비교한 학력 우수 아동의 특성에 대한

본 연구 결과와는 다르게 지각되어지는 행동 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후속 연구로 영재, 학력우수 아동, 일반 아동간의 행동 특성을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일반 아동과 비교한 영재 아동들의 행동 특성을 살펴본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반 아동과 비교한 영재적 특성과 학력우수 아동과 비교한 영재적 특성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 결과에서 교사들은 영재와 학력우수 아동 간에 언어사용, 학습 속도, 다양한 영역에서의 흥미도, 독립적인 학습 태도와 도덕성 등에서 유의한 행동특성에 차이가 있다고 지각하였다. 또한, 교사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영재와 학력우수 아동이 비슷한 행동특성을 보인다고 지각하였다. 윤여홍(2000)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영재를 높은 지적 능력과 함께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력이 높고 우수한 성적을 받는 아동들로 간주하고 학력우수 아동이 영재인 것으로, 영재가 마치 학력우수 아동인 것으로 지각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로 인해, 현재의 영재 판별은 학력우수 아동 위주의 영재를 선별하는데 더 익숙해 있는 실정이라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영재와 학력우수 아동이 보이는 유사한 행동 특성으로 인해 교사가 학력우수 아동을 영재로 추천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며 영재 판별에 있어 교사 판별의 정확도가 낮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지능이나 학업성적이 우수하지 못한 영재, 장애가 있는 영재, 언어적·문화적 차이가 있는 곳에서 자란 몇몇 특수한 영재 아동들은 판별과정에서 종종 간과되어 지며 이로 인해 적절한 영재 교육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김종현 외, 2003; Coleman & Cross, 2001). 그러나 교사가 영재 특성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평가를 한다면 영재 판별의 정확도가 향

상될 수 있다고 제기되었다(Renzulli, Hartman, & Callahan, 1971). 그러므로 본 연구 결과에서 제시된 교사가 지각한 영재와 학력우수 아동간의 행동 특성 비교를 통한 결과와 더불어 후속 연구를 통해 영재와 학력우수 아동간의 행동 특성에 대한 이해를 넓히며 나아가 영재 판별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김종현 · 윤치연 · 이근배 · 이성현 · 이은림(2003). 특수아동교육. 형설출판사.
- 영재교육진흥법(2002).
- 윤여홍(2000). 영재의 심리적 특성과 정서발달을 위한 상담. *한국심리학회지 : 일반*, 19(1), 79-101.
- 이영주 · 이귀옥(2004). 영재와 주의력 결핍/과잉행동 장애의 행동특성과 판별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사회과학연구*, 20(2), 175-191.
- Chambers, J. A., Barren, F., & Sprecher, J. W.(1980). Identifying gifted Mexican-American Students. *Gifted Child Quarterly*, 24, 123-128.
- Clark, B.(1997). *Growing up gifted*(5th ed.). Columbus, OH : Charles E.Merrill.
- Coleman, J. L., & Cross, L. T.(2001). *Being gifted in school : An introduction to development, guidance, and teaching*. Texas : Prufrock press.
- Davis, G., & Rimm, S.(1989). *Education of the gifted and talented*.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 Hall.
- Ford, D. Y.(1998). The under-representation of minority students in gifted education : Problems and promises in recruitment and retentio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32, 4-14.
- Gallaher, J. J., & Gallahger, S. A.(1994). *Teaching the gifted*(4th ed.). Boston : Allyn and Bacon.
- Gear, G.(1978). Effects of training on teachers' accuracy

- in identifying intellectually gifted children. *Gifted Child Quarterly*, 20, 478-490.
- Hollingworth, L. S.(1942). *Children above 180 IQ, Stanford-Binet : Origin and development*. Yonkers, NY : World Book.
- Kolb, K. J., & Jussim, L.(1994). Teacher expectations and underachieving gifted children. *Roepers Review*, 17, 26-30.
- Lamkins, A.(1977). *A model : Planning, designing and evaluating identification instructional programs for gifted, talented and/or potentially gifted children*. Albany, N.Y. :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 Maker, C. J.(1996). Identification of gifted minority students : A national problem, needed changes and a promising solution. *Gifted Child Quarterly*, 40, 41-50.
- Milgram, R., & Milgram, N.(1976). Group versus individual administration in the measurement of creative thinking in gifted and nongifted children. *Child Development*, 47, 563-565.
- Piirto, J.(1999). *Talented children and adults : Their development and education*(2nd ed.). Columbus, OH : Charles E. Merrill.
- Pintrich, P. R., & DeGroot, E. V.(1990). Motivational and self-regulated learning components of classroom academic performa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2, 33-40.
- Renzulli, J. S.(1978). What makes giftedness : Reexamining a definition. *Phi Delta Kappa*, 60(3), 180-184.
- Renzulli, J. S., Hartman, R. H., & Callahan, C. M. (1971). Teacher identification of superior students. *Exceptional Children*, 38, 211-214, 243-248.
- Renzulli, J. S., & Smith, L. H.(1977). Two approaches to identification of gifted students. *Exceptional Children*, 43, 512-518.
- Roedell, W. C., Jackson, J. E., & Robinson, H. B.(1980). *Gifted young children*. New York : Teachers College Press.
- Sattler, J. M.(2002). *Assessment of Children : Behavioral and Clinical Application*(4th ed.). La Mesa, California : Jerome M. Sattler Publisher.
- Schunk, D. H.(1984). Self-efficacy perspective on achievement behavior. *Educational psychologist*, 19, 48-58.
- Silverman, L. K.(1995). Highly gifted children. In J. L. Genshaft, M. Bireicy, & C. L. Hollinger(Eds.), *Serving gifted and talented students : A resource for school personnel*(pp.124-160). Austin, TX : PRO-ED.
- Terman, L. M.(1925). *The mental and physical traits of a thousand gifted children*. Stanford, CA : Stanford University Press.
- Terman, L. M., & Oden, M. H.(1947). *The gifted child grows up : Twenty-five years' follow-up of a superior group. Genetic studies of genius(Vol. IV)* Stanford, CA : Stanford University Press.
- Torrance, E. P.(1965). *Rewarding creative behavior,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 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of Educational Research and Improvement(1993). *National excellence : A case for developing America's talent*. Washington, DC :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Whitmore, J. R.(1981). Gifted Children with Handicapping Conditions : A New Frontier, *Exceptional Children*, 48, 106-114.

2005년 4월 30일 투고 : 2005년 6월 20일 채택